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	40 출발 드림팀 2(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55 생생 정보통 플러스(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영상기행 한국의 명소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씨네 포트(재)
1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TV 아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00 엄마의 탄생(재)	00 MBC 네트워크 특선 〈바다,잘피 숲에 들다〉 55 꾸러기 식사교실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발칙한 사물 이야기 다빈치 노트(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MBC 뉴스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KBS 뉴스 10 한-아세안 정상회의 특선 앙코르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꼬마신랑 쿵도령(재)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5 헬로키즈 룰루랄라 공룡여행 55 내사랑 뚱	00 SBS 뉴스 1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4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 체조(재)	00 TV유치원 콩다콩 30 두리둥실 뭉게공항2(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피	00 외계가족 졸리폴리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10 생방송'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20 닥터 지 바 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내조의 여왕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힐러〉	00 월화 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SBS 대기획 〈비밀의 문〉
11	00 여변호사가 말한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창사 53주년 특집 다큐 CCTV공동제작 〈기후의 반란 1부 징후〉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지구의 경고, 와일드 웨더 ①:20 먹거리 X파일(재)	20 ABU국제공동제작 CARE4 〈제1편 홍콩〉 ①:00 2014 삼성화재 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결승 1국〉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해외걸작드라마 〈아틀란티스- 희망의 대가〉 ①:40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45 살맛 나는 세상 스페셜 ①:45 바비킴·이루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나의 성공비결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코코몽2(재)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두다다쿵(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08:50 곰디와 친구들
09:05 원더 볼즈(재)
09:20 출동 슈퍼윙스(재)
09:35 빼꼼
09:40 부모 〈부모광장〉
10:10 EBS 특강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3:05 지식채널e
13:10 생활백과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3:50 사이틴(Sci-teen)
14:00 두키 탐험대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4:45 코코몽2
15:00 신다는 요정 학교
15:15 지구를 지켜라
15:30 올리비아
15:50 피터 래빗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꼬마버스 타요
17:45 두다다쿵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지파이터스
19:30 EBS뉴스
19:50 리얼극장 〈아빠와 사춘기〉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사왓디 캅 태국〉
21:30 한국기행 〈가야산〉
21:50 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골목은 동사다〉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00:50 〃 〈오광석의 수학 I〉
01:40 〃 〈오렌지의 영어〉
02:30 수능길잡이〈문학〉
03:20 〃 〈수학 I〉
04:1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5:00 〃 〈영어독해 유형〉
06:40 〃 〈박근영의 미적분 I〉
07:30 〃 〈차현우의 미적분II〉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09:10 〃 〈독서와 문법〉
10:00 고등예비과정〈장동진의 국어〉
10:50 〃 〈최은진의 수학 I〉
11:4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2:10 2016 수능개념〈윤연주의 영어〉
13:05 〃 〈윤장환의 영어〉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14:50 〃 〈주혜연의 영어〉
15:40 2016 수능열기
〈오렌지의 영어〉
16:30 〃〈유종현, 윤선명의 국어〉
17:20 〃 〈오광석의 수학 I〉
18:10 고등예비과정〈장동진의 국어〉
19:20 〃 〈최은진의 수학 I〉
20:00 〃 〈김소연의 수학II〉
20:50 〃 〈주혜연의 영어〉
21:50 수능길잡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EBS플러스 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07:30 나의 성공비결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 강좌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 1(상)〉
10:30 〃 〈역사 1〉
11:10 〃 〈국어③④〉
11:50 〃 〈수학 2(상)〉
12:30 등업신공 〈수학1(상)〉
13:10 〃 〈수학2(상)〉
13:50 〃 〈과학2(상)〉
14:30 〃 〈수학2(상)〉
15:20 만점왕 〈국어3-2〉
15:50 〃 〈국어4-2〉
16:20 〃 〈국어5-2〉
16:50 〃 〈국어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2〉
18:00 TV 중학 〈문학 3〉
18:40 〃 〈비문학 3〉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등업신공 〈수학3-2〉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중급〉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1
24:00 백점공략 〈수학 1〉
24:30 〃 〈과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8일(음 10월 17일 癸丑)

子

36년생 달성할 것이다. 48년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한 때이다. 60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느니라. 72년생 본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84년생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88

丑

37년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9년생 중차대한 것이니 절대로 놓치지 않음이 좋다. 61년생 갖출 것을 생략한다면 상당히 더딜 것이다. 73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85년생 잠자코 있는 편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04, 51

寅

38년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50년생 호조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느니라. 62년생 지나치다면 폐단을 머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74년생 원만한 정도가 최적의 국량이니라. 행운의 숫자 : 37, 72

卯

39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판도에 놓여 있도다. 51년생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취하는 형세이다. 63년생 상승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75년생 잘 활용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65, 16

辰

40년생 현상 유지야말로 상책임을 알고 진중해야 한다. 52년생 적재적소에 쓰여야 효과를 보는 법이다. 64년생 보류되어 왔던 것을 재개하는 마당이니라. 76년생 말 못할 애로 사항이 있으니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43, 24

巳

41년생 헛고생하게 될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다른 길을 모색하자. 53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 한다면 후환을 면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77년생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행운의 숫자 : 25, 33

午

42년생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겠다. 54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다보면 행운을 잡게 된다. 66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 78년생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힘들다. 행운의 숫자 : 60, 78

未

43년생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전개 될 것이다. 55년생 단순한 형태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67년생 공을 들여왔다면 긴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79년생 지금 착수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4, 09

申

44년생 양어깨가 무거울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56년생 과욕은 곧 어리석음을 낳게 될 것이니라. 68년생 긴히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80년생 예상이 빗나간다면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67, 85

酉

45년생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69년생 성과를 보이리라. 81년생 학수고대 해왔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68

戌

46년생 제3의 요소가 생기면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차질이 없으리라. 70년생 가장 현실적이어야만 후회하지 않게 된다. 82년생 진정한 가치를 따져볼 일이로다. 행운의 숫자 : 20, 56

亥

47년생 숨은 뜻을 놓치지 말고 파악해야 하느니라. 59년생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도다. 71년생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느니라. 83년생 규칙적이고 꾸준해야 실효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3, 4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올 겨울 여심 녹일 꽃미남 배우들이 온다

'상의원' 유연석 '기술자들' 김우빈 '강남 1970' 이민호 등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불어 오는 겨울. 영하의 날씨는 매섭지만, 영화관에 가면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저절로 사르르 녹을 듯하다.

유연석·김우빈·이민호 등 보고만 있어도 훈훈해지는 이른바 '대세' 남자 배우들이 대거 스크린으로 몰려 오기 때문이다.

먼저 작년 tvN의 '응답하라 1994'(응사)에서 메이저리거 '칠봉' 역으로 데뷔 10년 만에 일약 스타가 된 배우 유연석(30)은 한석규·고수·박신혜와 함께 한 사극 '상의원'을 선보인다.

'상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상의원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을 그린 영화로, 이번 달 개봉작 중 유일한 사극 영화다. 유연석은 '왕'의 역할을 맡아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내면 연기를 펼쳐 보인다. '상의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개봉한다.

지난해 드라마 '상속자들'과 영화 '친구2'로 존재감을 빛낸 배우 김우빈(25)은 영화 '기술자들'로 관객과 만난다.

역시 24일 개봉하는 '기술자들'은 2012년 '공모자들'로 데뷔한 김홍선 감독의 신작으로, 인천세관에 숨겨진 1500억원을 40분 안에 털어야만 하는 범죄 기술자들의 '역대급 비즈니스'를 그린 작품이다. 김우빈은 천재 해커 '종배'역을 맡은 이현우(21) 등과 함께 팀워크를 선보이는 전문 금고털이범 '지혁'으로 분한다. 개봉 전부터 아시아필름마켓에서 4개국 선판매를 이뤄낸 기대작이다.

'한류 스타' 이민호(27)의 첫 스크린 주연작인 '강남 1970'은 1970년대 서울,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 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린 영화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를 연출한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판으로 기대를 모으는 작품.

욕망에 목숨을 거는 위험한 청춘 '종대' 역을 맡은 이민호는 영화 '해바라기'(2006)에 이어 8년 만에 액션을 선보이는 김래원(33)과 함께 거친 액션을 소화했다. 이미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등 아시아 10여 개국의 배급을 확정한 '강남 1970'은 내년 1월 개봉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 남동생' 여진구(17)는 소설가 정유정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내 심장을 쏴라'에서 이민기(29)와 함께 웃음을 선사한다. 내년 1월 관객에게 선보일 이 영화는 평온한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모범환자 '수명'(여진구)이 시한폭탄 같은 동갑내기 친구 '승민'(이민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다룬 작품이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27)는 문채원과 주연을 맡은 로맨스 영화 '오늘의 연애'를 통해 내년 1월 스크린 신고식을 치른다. 올해 초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인 윤아(24)와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이승기는 영화에서 여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해주지만 100일도 못 가 차이는 답답한 초등학교 선생님 '준수'로 분했다.

"데뷔 4000일 … 함께 해줘서 고마워"

'동방신기 스페셜 라이브 …' 공연 성황

"오늘로 데뷔 4천일인데 힘도 나고 신도 납니다."

그룹 동방신기(유노윤호, 최강창민)〈사진〉가 지난 2003년 12월26일 첫 방송을 한 이래 7일 데뷔 4천일을 맞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릴 '동방신기 스페셜 라이브 투어-T1스토리'의 서울 공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년 동안 오래 활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첫 방송출연 후 2004년 1월 데뷔 음반을 발매하고 꾸준히 정상의 자리에 있는 비결을 묻는 말에 서로에 대한 고마움으로 답을 대신했다.

최강창민은 "내가 윤호 형 옆에 기생충 마냥 끈질기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유노윤호도 "창민이 덕을 봤다"며 "둘이 무대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점이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시간을 평가해달라는 물음에 최강창민은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서도 "후배 중에 요즘 '선배님 팬이었어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말이 고맙더라. 내가 가수가 돼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유노윤호도 "지난 시간 가장 기쁘고 슬프고 좋았던 순간은 무대 위였다"며 "무대에서 우린 모든 걸 표출했다. 동방신기 콘서트는 이제 어떤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는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K팝 스타로 활약했다. 2005년 일본에 데뷔해 성공적인 활약을 펼치며 지금의 K팝 그룹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 최근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다 싱글 판매량(누적)인 408만8000장을 기록한 동방신기는 새롭게 세우고 싶은 기록을 묻자 "우리의 기록을 계속 넘어보고 싶은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강창민은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를 한번 하면 70만~80만 관객을 기록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해서 한번 투어를 돌 때 100만 관객을 모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진 이날 공연은 SM의 퍼포먼스 디렉터인 심재원이 총 연출을 맡아 동방신기의 역사를 총 망라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최강창민은 "공연 제목에 걸맞게 팬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다"며 "어떤 노래를 부르면 동방신기와 함께 한 추억과 시간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공연은 오는 13일 대만 타이베이아레나와 19일 중국 베이징 마스터카드센터에서도 열린다.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 … 기자의 길 버린 아빠

인간극장 오늘부터 5부작 방영

13년간 기자로 살았던 강남구(39) 씨는 자신의 직업을 천직이라고 여겼다. 2년 전 젊은 아내가 아들과 자신을 남겨두고 세상을 뜨기 전까지 말이다. 아내는 혈액암 일종인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았다. 강 씨는 결혼 전부터 아내 병을 알았지만, 사랑했기에 주저 없이 아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얼마 후에는 사랑의 결실인 아들 민호도 생겼다.

지혈이 안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50시간 넘는 진통 끝에 얻은 아이이기에 아들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더욱 깊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 짧았다.

일하는 데 밤낮이 없는 직업에 충실하다 보니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강 씨의 큰 회한으로 남았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 결심한 뒤 육아휴직이나 야근 없는 근무도 시도했던 강 씨는 결국 아들과 온전히 함께하고자 직장을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다.

KBS 1TV '인간극장'은 8일부터 닷새간 방송되는 '사랑은 아직도' 편을 통해 주부 아빠로 사는 강 씨 사연을 전한다.

강 씨는 혹시 누군가 민호를 두고 '엄마 없는 아이여서 저렇다'고 손가락질할까 봐 아들을 더 열심히 씻기고 옷도 정성껏 빨아 입히며 청소도 수시로 한다.

이제는 특종을 했을 때가 아닌, 열심히 만든 음식을 민호가 맛있게 먹어주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

아내가 세상에 남긴 분신인 민호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면 민호 친구 엄마들과의 어색한 만남도 감수하고 필요한 정보에도 귀 기울이는 아버지 강 씨의 모습이 전파를 탄다. /연합뉴스